

지역 소식통

김제 지방규제신고센터
연중 운영

김제시(시장 박준배)가 지방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기업,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지방규제신고센터는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생활속 불편규제, 인·허가 민원처리 시 불합리한 절차 및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주는 규제 애로사항을 수렴해 이를 신속히 해결하는 제도적 지원 장치다.

접수된 내용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해당 부서 협의를 통해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하며 중앙부처 해당사항은 법령규제 개선 건이나 온라인 지방규제개혁 신문고 등을 통해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신고방법은 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직접 김제시 기획감사실 신고접수 창구(☎063-540-3723)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www.gimje.go.kr) 또는 규제개혁 신문고(www.sinnungo.go.kr) 등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재해취약지역
현장점검

박준배 김제시장은 28일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재해취약지역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신평동 우수 저류시설과 김제역 주변 풍수해지구, 금산5지구 급경사지와 당월·율치지구 재해취약 개선지구로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사전 예방활동 일환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태풍, 호우 등 급변하는 기상여건에 적극 대처하고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교육·홍보를 통하여 기상 상황을 보다 신속히 전파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지난 3월 2일부터 5월 14일까지 자연재난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3개 협업부서별 비상 대응반을 편성하고 인명피해 우려지역과 둔치주차장, 재난예방보시시설, 하천 및 우수관 준설 등 시설물에 대해 일제 점검을 추진하고 응급 복구장비 및 재해 구호물품 등을 완비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특장업체 최초 '시트안전강성시험' 합격

김제시 캠핑카 전문업체 유니캠프, 국내 최초 스타렉스 '승용' 시트 앵커리지 연속 통과

스타렉스 기반 캠핑카 전문업체 (주)유니캠프(대표 오완곤)가 자사의 신규 개발 스타렉스 3인시트와 2인시트가 제조사를 제외한 특장업체 중 최초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시트안전강성시험(시트 앵커리지 시험)에서 자동차안전 최고 기준인 승용차 안전기준에 준하여 캠핑카 승차 전좌석 3점식 벨트가 적용될 수 있는 성능을 검증 및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유니캠프가 타 업체보다 한 단계 앞서 나가게 되었다는 평가다.

유니캠프는 지난 3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전차중 캠핑카 제작이 가능해진 데 대한 후속 조치로 승용 시트에 대한 시트안전강성시험을 준비해 왔다. 이번 시험 통과로 오는 6월 5일부터 3일간 열리는 2020 국제 아웃도어 캠핑 & 레포츠 페스티벌(GOCAF)에

급변 신규 개발한 시트가 적용된 '2020 유니캠 RT'를 선보인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유니캠프는 스타렉스 기반 세미캠핑카 업체 중 선두주자로 2019년 기준 130억 매출과 34%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성능평가, 지식재산권 확보, 융합 기술개발을 통하여 업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최근 출장 A/S 및 방문상담 서비스 지역 확대, 김제 제2공장 착공, 신용보증기금 15억 투자 유치, 미국 라스베가스 리무진쇼(CD/NLA SHOW) 전시회 참여, 국내 최초 스타렉스 캠핑카인 유니캠 RT 북미출판 성공 등 국내외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지평선축제 제2위원회(위원장 정희운)에서는 전라북도 최초로 운영하는 축제 이벤트 경영사 3급 자격과정인 지평선축제 대학 개강식을 개최했다.

'지평선 축제 대학' 개강식

축제 이벤트 경영사 3급 자격 과정 66명, 7월 14일까지 본격 교육

김제시지평선축제 제2위원회(위원장 정희운)에서는 전라북도 최초로 운영하는 축제 이벤트 경영사 3급 자격과정인 지평선축제 대학 개강식을 구) 문화예술회관 2층 지평선축제 대학 교육장에서 개최했다.

지평선축제 대학 개강식에는 정희운 제2위원회장을 비롯한 황영석 도의원, 나인권 도의원, 김영자 시의회 부의장, 노규석 시의원, 오상민 시의원, 이정자 시의원, 정강환 세계축제 한국지부 회장, 최상규 배재대 교수 등 교육생 66명이 참여 내빈소개 및 환영사, 축사, 격려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지평선 축제대학은 세계축제협회 한국지부 및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발급해주는 축제 이벤트 경영사 3급 자격증 과정 교육으로써 5월 28일부터 7월 14일까지 8주 동안 매주 화요일 18시 30분부터 21시까지 축제 및 이벤트의 이해를 위한 이론적 접근, 축제의 중요성 및 파급효과, 축제 경영의 실제와 전략, 국내외 축제 성공사례 연구 등을 교육받게 된다.

지평선축제대학 교육생은 도의원 2명 및 시의원 4명을 비롯하여 총 66명(남 36, 여 30)으로 지역별로는 김제 55명, 전주 8명, 군산 2명, 익산 1명이며 교육 연령은 20대 4명, 30대 5명, 40대 11명, 50대 22명, 60대 21명, 70대 3명 등이다.

정희운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지평선축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농경문화축제로 성장하는데 더욱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는 때"이며 "이번 지평선축제 대학에서 전문인력의 확보 및 인프라 구축은 매우 중요하며 축제 전문교육을 이수하여 축제 이벤트 경영사 3급 자격을 취득, 지평선축제를 활성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길 바란다"며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30년 방치 완주 온천지구, 이제 숨통 트인다

완주군, 죽림·운주·고당 온천지구 해제... 대둔산 온천은 용역 진행

30년 가까이 방치됐던 완주군 온천지구가 다시 활기를 찾고 있다.

28일 완주군은 관내 죽림, 운주, 고당, 화심, 대둔산 등 5개 온천지구가 정비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 일제정비를 통해 죽림, 운주, 고당온천은 온천지구 해제를 완료해 추후 다른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화심온천 역시 6월 중 해제를 목표로 전라북도와 관련절차를 진행 중이다.

완주 대둔산온천은 기존에 수립된 개발 계획을 다시금 검토한다. 1단계로 추진하다 중단된 지역은 온천원 개발지구로 존치하고, 2단계 지구는 해제하는 계획으로 개발계획을 변경해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이번 추경에 용역비를 반영했다.

온천법에 따르면 온천이 발견되면 온천원 보호지구 등으로 지정돼 지하수 개발이 제한되고, 다른 용도로 땅을 개발할 수 없게 된다. 이에 토지소유자는

토지이용행위에 제약을 받게 된다.

완주군은 그동안 법과 규제에 묶여 방치된 온천지구 문제를 해결하고자 토지주를 비롯해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과정을 거쳤고, 이번이 이와 같은 성과를 얻어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지난 해부터 문제 해결을 위해 토지주와 수시로 소통했고, 행정에서도 규제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조금씩 가다가 잡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천이 앓아눕지 않는 지역발전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 김산주공 1차 - 김제시보건소, 치매안심아파트 운영 협약 체결

김제시 보건소(소장 김형희) 치매안심센터는 28일 김산 주공 1차 치매안심 아파트 운영을 위한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였다.

김산 주공 1차 아파트는 신규 공모를 통하여 지난 5월 1일 김제시 제2호 치매안심아파트로 선정되었으며 지난 2019년 월성동 마을이 김제시 제1호 치매안심아파트로 선정된 바 있다.

치매안심마을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치매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치매가 있어도 살아있던 동네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치매 친화적 지



역공동체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김제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김산주공 1차 치매안심아파트의 주민 및 지역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를 실시하고 주민의 치매조기검진까지 실시하였다.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김제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환자가 지역사회 안에서 안전하고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다음 달 2일(화)에 환렴제막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 청년키움식당, 우리밀 건강메뉴 출시

완주 청년키움식당이 전주우리밀협동조합과의 협약을 통해 우리밀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우리밀을 사용하면 청년키움식당은 한층 안전하고, 건강한 메뉴를 선보인다.

28일 완주군 외식창업인큐베이팅추진단(단장 정재운)과 전주우리밀영농조합법인(대표 신지호)이 후원 협약을 체결, 우리밀 식재료를 저렴하게 납품받을 수 있게 됐다.

청년키움식당 완주점 3차 참가팀인 '보물같은밥상' 팀은 전주우리밀영농조합법인의 후원으로 우리밀라면 세트메뉴, 감자라면 세트메뉴, 돈가스 비빔라면 등의 메뉴를 선보인다.

신지호 대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청년키움식당을 통해 우리밀 제품에 대한 인식개선 및 소비가 확대돼 지역

사회의 건강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협약식을 주관한 정재운 단장은 "건강한 우리밀 식재료로 다양한 메뉴를 개발해 소비자에게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겠다"며 "청년키움식당 참가팀들이 지역의 우수 식재료 사용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창업을 위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키움식당 완주점은 완주군에서 3번째 운영하고 있는 외식창업인큐베이팅사업이다.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외식창업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의 우수 식재료를 우선 사용하는데도 앞장서고 있어 외식창업 선도 모델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전주매일
교통캠페인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